

게리 미도어스 박사, 고린도전서 33강, 고린도전서 16장,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헌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응답과 마무리 발언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강의 33, 고린도전서 16,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헌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 및 마무리 발언입니다.

글쎄요, 고린도전서에 대한 우리의 강의 시리즈의 마지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16장을 살펴볼 텐데,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강의를 끈기 있게
들어준 희귀한 사람 중 하나라면 축하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며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연구에 자극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관해서는
더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고 좋은 문헌을 읽음으로써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문헌을 읽는 것은 당신의 성장과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능력의 비결입니다.

글쎄요, 오늘은 33강이고, 노트팩 번호 17인데, 241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 241페이지, 노트팩 17, 그리고 우리는 책의 마지막인 16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서신입니다.

긴 글인데, 기억하시겠지만 서신에는 서론, 본문,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의 끝에 다다랐지만 아직 결론은 아닙니다. 결론은 16
장의 후반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의 질문이나 관심사, 혹은 바울의
승진에 대한 문제를 여전히 다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16장 1

절에서 죽음 전후의, 지금에 대한 구절을 사용하여 7장 1절과 그 이후의 흐름에 연결합니다.

지금에 대한 것은 NIV 2011에서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컬렉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주요, 주요 프로젝트였던 제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도시에는 경제 문제와 자원 가용성 측면에서 기근이 있었고, 바울은 이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돈을 모으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울 자신의 열정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의 증언에서 말했듯이 유대인의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 도시를 사랑했으며, 그의 전통을 사랑했고, 그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에도 이 더 큰 이방인 선교가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을 말하자면 그들의 어머니로 여겼고, 그들은 구약성경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이방인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모금한 것은 1a 241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컬렉션을 참조하는 다른 텍스트를 제공했고, 그 구절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조적 지표로의 복귀,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바울이 여전히 고린도 사람들의 우려 사항 중 일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묻는 질문이든, 바울이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우려이든 말입니다. 이 제안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열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겪고 있었고, 특히 아시아 교회의 이러한 노력은 바울이 언급한 교회들이며, 그들을 돕는 것은 모교회에 큰 호의를 돌려줄 것입니다. 헌금에 사용된 그리스어 용어는 세속 그리스어에서 신성한 목적을 위해 돈을 모으는 데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Garland는 바울이

예루살렘 헌금 프로젝트를 언급할 때 이 특정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유일하다고 지적합니다.

Garland는 그것이 고린도인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용어를 사용했고 바울이 예루살렘 프로젝트에 대한 다른 참조에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63페이지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프로젝트를 상상하는 것을 묘사한 Garland의 흥미로운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주석에서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져야 할 해설이고, 당신은 그 위치에서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방인 교회의 사역은 아마도 바울에게, 그리고 바라건대 그 시대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적 기원에 대한 영적 빛을 인정한 것이었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회는 역사적 연관성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시민적 배경이었으나 쇠퇴하고 사실상 사라지면서 메시아의 유대인 사명을 자신의 역사의 한 조각으로 통합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의 진리를 전하는 데 사용하는 패키지가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서기 70년까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상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사용한 패키지로 사용하셨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교회를 통해 역사적 의미 측면에서 채워지는 그 메시지와 관련하여 그 도전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제물은 교회가 유대인과 특히 구약에 대한 감사의 빛을 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둘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약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역사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는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도덕적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다루는, 신약성경에서 다루지 않은, 많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도덕적 문제들이죠.

성적인 문제가 많고, 우리는 그 정보를 통해 그것을 우리 자신의 윤리적 맥락에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륜적 전통, 적어도 초기의 전통은 구약을 두 갈래로 나누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륜적 그룹의 마지막 경륜적 성경인 라이리 스터디 바이블조차도 그것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사실, 세퍼와 스코필드의 원본은 라이리의 스터디 바이블을 봤다면 아마 그를 해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제작했을 때쯤에는 그들은 오래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산상 설교가 합법적인 자료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좋은 도덕적 자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경계선을 어떻게 그을지 매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불연속성보다 연속성이 더 많지만, 실제로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많은 것들, 예를 들어 시민적 실체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그것은 국가였습니다. 정부가 있었습니다. 제물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마지막에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물은 예루살렘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열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교회가 그들에게 빚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이방인 교회의 진정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전해져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었던 바울에 의해 신약에서 채택되었고, 기독교화되고, 그리스도교화 되고, 구원의 계획에 따라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특히 구약에 따라 죽으셨습니다. 셋째, 예루살렘과 그리스-로마 세계의 더 큰 부분 사이에 가끔씩 긴장이 생기는 것을 감안하면, 일종의 종려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해외로 흩어졌을 때,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도 해외로 흩어졌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알려진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야고보서는 초기

구절에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디아스포라는 해외로 흩어진 유대인들이고, 그들이 고대 세계로 흩어졌을 때, 대서양에서 서아시아까지, 그 모든 곳이 유대인 공동체의 주머니로 덮여 있었고, 전통에 따르면, 그들이 유대인 가족 10가구를 갖게 되면 회당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회당은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사원이 아닙니다. 회당을 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원이 아닙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성경을 듣고 신에 대해 토론하고 정기적으로 지역 사회를 모으는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더 큰 세계로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리스인들에게 갔는데, 대개 아고라, 즉 시장이었고, 그래서 인구가 많은 세계 전역에 기독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독교 선교와 관련하여 더 우수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모든 유산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권력을 위한 싸움은 종결되었습니다.

로마가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70년경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통치를 확립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위대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정복했지만, 조직하고 유지하는 데는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조직 기계였고, 로마법, 로마 절차, 그리고 절차가 있었고, 그들은 알렉산더가 제공한 세상을 가져가 그냥 걸어 들어가서 통제권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들 스스로도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룬 것과 그의 상속자들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알려진 세계 전역에 유대인들이 존재했고,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측면에서 선교 사업에 즉시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왕국을 전달할 사람이며, 따라서 큰 감사의 빛이

있고, 위대한 통합이 있습니다. 그저 통합이 아니라, 많은 통합이 있지만,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에는 위대한 연결이 있으며, 이것은 결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 학자들의 성경 연구는 기독교 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저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성경 연구 측면에서 교류하는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물론, 1세기, 특히 복음서는 문학 장르 측면에서 여전히 구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읽은 후 복음서를 읽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여전히 구약 문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를 다루려면 유대인 해석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복음서에 많은 해악과 학대가 가해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6:2-4입니다. 이제 16:1에서 교회가 해야 할 헌금에 대해 주목하세요. 그리고 여기 2-4절에서 바울의 지시가 나옵니다. 매주 첫째 날, 매주 여러분은 각자 수입에 따라 돈을 따로 모아야 합니다.

이게 NIV인데, 내가 갈 때 헌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모아둔 거야. 흥미로운 뉘앙스지? 미리 받아. 그러면 내가 도착하면 네가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소개장을 주고, 네 선물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줄게.

나도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돈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작은 통찰력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금액의 돈이었을 수 있으며, 그 당시에는 동전과 다양한 종류의 금, 금과 은이었기 때문에 막대한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보석이나 돈 자체일 수 있으며, 아마도 짐을 싣는 짐승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운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히 로마 도로가 거대했던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고대 세계에서는 강도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상상의 여지가 없이도 작은 프로젝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16:2-4. 주의 첫날.

이제, 그것은 일요일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예배를 드린 날이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동안, 그들은 자주 모였습니다. 때로는 매일 모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반부에서, 패턴은 일주일의 첫날에 기업 그룹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이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식적으로 모인 시간으로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푸는 것에 대한 그의 격려는 예루살렘 프로젝트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실례합니다. 거기에 '아니요'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넣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일 뿐입니다. 교회가 스스로를 어떻게 부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거둔 특별한 헌금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반복적으로 헌금을 거둔다면 그것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시 접시를 돌릴 필요가 없었지만, 모든 것이 처리되어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십일조나 다른 어떤 기준, 즉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어떤 기준에도 호소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Zerwick 이 말했듯이, RSV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따로 모아서 여러분이 번 여분의 돈을 저축해야 합니다. NIV 2011에서는 수입에 맞춰 일정 금액을 따로 모아서 저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청구서를 지불하고 의무를 다한 후에, 말하자면 이익이 생기는 것과 관련된 일종의 제물이며, 그것이 당신이 자금을 인출하는 기부가 되게 합니다. 꽤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십일조 상황이라는 생각은 교회에서 여전히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종종 헌금을 제자리에 두기 위한 조작적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 이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서 또 다른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바울의 지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수준의 표준을 제공하여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상황에 비추어 할 수 있는 대로 주십시오. 그것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표준은 없습니다.

10%는 부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필요 이상으로 축복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며, 그것이 여기서 기준이 됩니다. 주는 것이 필수품이 처리된 후에 관련된다는 것은 타당한 의미입니다.

은 없습니다 . 이 제물과 관련하여 죄책감의 의미는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립니다.

바울은 그 외에는 당신이 어떻게 줄 것인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제물을 원할 뿐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의 풍성함에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희생적으로 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본 모든 설교는 항상 희생적으로 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복음서에서 과부의 힘을 사용하는데, 이는 예수께서 성전에 계시는 마지막 날이며, 예수께서 수난주간에 성전에서 설교하신 날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들이 떠날 때, 그는 과부와 그녀가 과부의 힘을 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는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헌신과 충실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과부의 힘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날 종일 마주치셨던 모든 불충실함 가운데, 그들이 종교 지도자이든 누구이든, 그녀만이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헌신을 nth 정도로 보여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확실히 그 돈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희생이 있었지만, 그 유대 제도 하에서 그녀는 신에게 충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셨고, 그가 그날 내내 칭찬한 유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맥락입니다.

맥락이 같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제물의 통제와 선물에 대한 관리에서 거리를 두면서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서도, 그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는 여행을 책임질 것입니다.

16절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게 좀 흥미롭네요. 내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으면 그들도 나와 동행할 테지만, 나도 그들과 동행할 거예요. 바울은 사도였으니까, 그 프로젝트를 감독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점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제, 제가 이미 암시했듯이, 성경의 십일조 개념이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기에 적절한 곳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이면서도 시민적 실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가의 인프라를 위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구약성경에서 베푸는 개념을 연구하면 십일조를 10%가 아니라 30%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베푸는 시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축제에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도시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들어와서 야영을 하고 돈을 썼습니다. 사실, 구약성서는 그것을 매우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세요, 음식을 사세요, 마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파티를 열세요.

그 모든 것이 예루살렘 도시, 이스라엘 국가, 성전의 전망과 과정을 규제한 제사장들의 인프라를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그 십일조는 실제로 그들의 세금이었습니다. 십일조라고 알려진 것은 실제로 세금이며, 그 세금은 종교적 목적뿐만 아니라 시민적 목적에 의해 주도되며, 그것은 이스라엘에만 고유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십일조는 종교적, 시민적 삶의 많은 영역을 포괄하는 세금이었습니다. 신약은 십일조를 기부의 기준으로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약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약 패턴과 유용한 유추적 관계를 관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을 조작하고 확대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유추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매우, 매우 조심하십시오. 제가 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에서 거리를 두고 싶어 하지만 십일조의 개념에서 거리를 두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십일조가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심하십시오. 성경이 의도된 대로 사용하십시오. 신약에는 어떻게 주고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구조를 세상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에는 없었던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꽤 거대한 예산에 대한 필요성도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6일 동안 비어 있고, 그 중 많은 교회가 한 번의 예배를 위해 텅 비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교회가 탁아소를 운영합니다.

그들 중 다수는 상담 주간과 아마도 성경 공부와 그런 종류의 것들 동안 다른 종교적 측면을 수용하지만, 우리의 현재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있었던 많은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수백만 달러짜리 공장을 짓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캠퍼스라고 부릅니다.

왜 그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곳에서는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캠퍼스라면 학교여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 예산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정말 어려워지고 있어요. 교회는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에는 주고 지원하는 개념이 결과물이에요.

그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산물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것은 영성의 산물입니다.

그것은 헌신의 산물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측면에 돈을 쓸 필요성을 소유한 산물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사람들의 부담이 깊어짐에 따라 돈이 들어오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 자체를 위해 돈에 집중한다면 문제와 저항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제물에 대해 한 흥미로운 진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간략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유추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계속해서 242페이지 중간, 바울의 측근 여행 계획. 1절에서 11절까지만 컬렉션 1a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2a에는 바울의 여행 계획이 있습니다 .

이것은 서신의 끝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어떤 서신은 다른 서신보다 깁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는 꽤 긴 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끝에서 여행과 그것의 역사적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특히 긴 책과 도전적인 책을 공부한 후에는 마지막 단어를 그냥 무시하거나 재빨리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채우지는 않겠지만, 바라건대 적절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여행 계획을 리허설한 것은

우리에게 초기 선교 사역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선교사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다른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여행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마도 장로들이었을 것이다.
그들 각자는 다른 방식으로 은사를 받았다 . 그들은 목사였을지 몰라도,
그들은 모두 순회했다.

그리고 이 서신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배우는 바울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1세기에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 우리 용어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몇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교사라는 단어를 보통 고국을
떠나 외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군인과
군인들과 함께 버지니아 주 노퍽과 플로리다 주 키웨스트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선교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데 사용해야 할
단어입니다. 전도사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4장에서 목사와 교사와 함께
사용되지만, 사실 전도사는 선교사와 크게 비슷할 것입니다. 선교사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을 포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요점은 24
2의 중간에 있습니다.

가장 초기의 선교 사업은 항상 순회적이었습니다. 거주하는 지도부는 창립
회중에서 나왔습니다. 그 지역 상황을 위한 지도부와 목사는 그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은,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처음 개종자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대인, 실례합니다, 이방인 선교에서요. 그들은 처음
개종자였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바울, 요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들을 그렇게 밀접하게 멘토링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행원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가르쳤고, 그 사람들을 1~2년 동안 그곳에 남겨 두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고린도와 다른 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나가서 이 회중에서 가르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전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가 항상 선택할 수 있는 신학교 졸업생 풀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그것을 좋아했을 것이지만, 그는 즉흥적으로 신학교를 다녔고,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립 교회들은 순회하는, 그것이 핵심 단어입니다. 선교사들은 다른 교회에서 보내져서 다른 곳에서 살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현대적인 방법인데, 여기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방법에 대한 처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명, 그들이 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선교를 할 수 있지만, 순회하는 성격에 우리를 놀라게 할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한 곳에서 30년을 보내고, 그곳에서 삶을 살고, 교회의 목사가 되고, 결코 그것을 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훌륭한 선교사들은, 미안합니다, 약간 조작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의 목표는 교회를 찾고, 교회를 세운 다음,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들의 선교 사역 철학에 의문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주로 그들이 사역한 장소에 의존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도들과 그들의 일행은 그들이 있는 장소에 의존하여 육체적, 재정적 필요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목계 하고, 돌보아 주었고, 그런

다음 본문에서 말했듯이, 그들은 그들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여러 장소로 보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다음 장소로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주고,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을 데려가서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세기 초에 매우 일터에서 지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와 같은 일부 교회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고 바울에게 돈을 보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지원은 사역 중에 모금되었고, 경비 이상의 급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그 당시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대 선교가 경비 이상의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권에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선교의 개념,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것이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선교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를 축적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은퇴를 계획할 만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돌볼 기회를 갖기 전에 죽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건강 관리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루어야 하지만, 미션이 콜과 과제보다 지원 수준에 더 관심을 갖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체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례별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처방적이지는 않지만 고려할 만한 좋은 단서가 있는 설명적 자료를 다루고 있습니다.

변형도 있었습니다. 풀은 독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풀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는 결혼했을 수도 있고, 그의 아내는 그를 떠났거나,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결혼하는 것이 관례였고, 그래서 우리는 바울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아내를 데리고 다녔고, 저는 여기서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베드로도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바울과 함께 여행할 때는 보통 사람들의 수행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역하는 모든 장소에 지원망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주거와 식량을 의미했고, 그들이 떠났을 때, 다음 장소로 갈 수 있을 만큼의 양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요점입니다. 이 노동자들의 여행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디도서,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심지어 마카비상서에서도 로마인들이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사절들이 유다 땅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고대 세계의 여행의 본질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고대 세계는 그렇게 운영되었습니다.

셈족의 환경에서의 환대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의무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화를 보셨다면, 저는 그 영화 제목조차 생각나지 않지만, 그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은 물개와 해군 물개에 대한 실화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 사람이 결국 도착한 아랍인들 사이의 환대법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호했고, 심지어 그들 자신의 목숨을 잃고, 아랍의 적들과 싸워서 이 사람에게 환대하겠다는 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관습이 때때로 우리 세계의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6절, 나를 보내게 하소서.

그것은 다양한 곳에서 튀어나오는 기술적인 문구입니다. 또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은 서신 중 하나인 요한 3서에도 나오는데, 가이오가 요한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합당한 수행원으로 보내고 떠나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지원이 필요했고, 여러분은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그 서신을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셋째, 요한은 순회 선교의 초기 활동을 엿볼 수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창구입니다. 바울이 죽은 후,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교회들을 관리했습니다. 초기에 그는 에베소에서 살았고, 아마도 에베소 출신인 디모데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셋째, 존은 그날 순회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창문을 제공합니다.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디다케에도 있습니다.

디다케는 2세기 교리입니다. 12명에 관한 내용이며, 초기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디다케에는 순회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은 잠깐만 왔다가 다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착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이 너무 오래 머물렀다면, 그때는, 제 생각에, 그것은 2~3일 후에 시작되었고, 그들은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순회 교사들의 관점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기능했는지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측면입니다. 바울은 여행 정보와 관련하여 9절에서 후원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듯이, 그 중 하나입니다... 저는 9절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네, 8절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효과적인 일을 위한 큰 문이 저에게 열렸고,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5절에서 조금 후에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노트에 일찍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후원 제도는 또한 기독교 선교에 기여했고, 우리는 16:15에서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왜 여기에 넣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디모데의 지위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가장 중요하고,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라, 에바브로디도, 디도, 마가 등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측근에 속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 그들은 많은 서신의 끝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디모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오면, 조심하라... 이제, 여기에 몇 가지 다른 개인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강의 중 하나에서, 우리가 그 고대 편지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그 매우 짧은 편지의 끝에서 이것을 보았지만, 여기서 주목하세요. 디모데가 오면, 그가 두려워할 것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도대체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글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고린도의 강한 성격과 아마도 디모데의 약한 성격인데, 바울이 목회서신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충실했습니다.

디모데는 열심히 일했지만, 디모데는 강한 성격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닌 듯하고, 바울은 솔직히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과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가 얼마나 위압적일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디모데 자신의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라. 디모데는 그런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하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후서 1장과 2장.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디모데에게는 그것이 공개적으로 읽히는 것이 약간 부끄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사실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그를 경멸해서는 안 돼요.

그의 젊음은 어떤 증언에 따르면 목회서에서 높이 평가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보내십시오.

평화라는 문구가 또 있습니다. 샬롬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좋은 의미입니다.

그냥 문 밖으로 그를 때리지 마세요, 문 밖으로. 그가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언급하는 일행입니다. 그를 보내세요. 따라서 이 언어에는 순회 사역의 본질과 교회가 그 개인들을 지원할 책임과 관련된 많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선교 사업이었고, 원한다면, 그들 자신의 사람들, 과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고 돌보는 데 드는 경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공동체는 모두 자체적인 돌봄 측면에서 내부적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사회 보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사회 보장 제도는 가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이 서사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의 사회 보장 네트워크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특히 구약과 같은 셈족 문화권에서, 심지어 신약까지 장자 문제를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보는 것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16:12의 아폴로. 이제 우리 형제 아폴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당신에게 가라고 강력히 권했습니다.

이제,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것은 비겁한 종류의 진술이 아닙니다. 바울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글쎄요, 아폴로는 그러지 않았습시다. 그는 지금 가고 싶어하지 않았지만, 기회가 되면 갈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에게 “보세요, 바울, 저는 지금 다른 일로 너무 바빠요”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가보겠습니다. 그냥 인내심을 가지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글의 함의를 그렇게 과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저 잔인할 정도로 솔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고린도에서 아폴로를 좋아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폴로에 대해 아는 바는 적지만, 그는 수사학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당신은 입을 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의 참석을 요청했을 수 있습니다. 그가 가고 싶어하지 않은 이유 중 일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바울은 그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에게 가라고 간청했고, 아폴로는 “아니요, 아직 가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바울의 관리된 수행원에 속하지 않았지만, 프리랜서였지만, 배우자였고, 바울에 대한 존경심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람이었고 풀이 합당한 목사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게 좋습니다. 풀은 누군가가 반발할 수 있었지만, 풀은 여전히 그들을 감사하고 존경했습니다. 비록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리더는 많지 않습니다. 풀이 항상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행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품품을 가지고 있고, 여행 계획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은 다른 세부 사항은 지리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이나 좋은 조사 책에서 가끔 얻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서신의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서신에는 공식적인 서두가 있습니다.

모든 서신에는 공식적인 마무리가 있고, 그것이 바로 지금 13절에서 우리가 도달하는 부분입니다. 더 일찍 시작되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13절에서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폴로에 대해 언급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7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인들이 아폴로의 임재를 강요했을 수도 있고, 바울이 그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노력했지만, 그는 그것을 가지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13절: 경계하십시오.

믿음에 굳건히 서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강해지십시오.

그것은 서신의 마지막 진술로의 매우 전형적인 전환입니다. 격려와 부름, 경계하라는 일반적인 권고. 주시하세요.

그것은 미래의 관점과 종말론적 경각심을 위해 21번 사용된 동사로, 특히 복음서에서 감시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요점을 파악하지 못했을 단어가 아닙니다. 감시는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경계하라. 준비하라. 당신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

믿음에 굳건히 서십시오. 나는 용감하고 강했습니다. 세상적인 실행에 경계를 제공하십시오.

바울은 그 권고로 끝맺습니다. 믿음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저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 말해야 했습니다. 적절한 과정이 무엇인지, 세상적이지 않고, 엘리트주의와 지위 등을 추구하지 않고, 성경적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을 더해, 굳건히 서는 것의 의미의 일부로 논의되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경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본문을 본문으로 두십시오.

좋아. 모든 것을 해. 용기 있고 강해지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15절 이하에 있는 칭찬. 우리는 고린도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기리는 칭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은 13장과 비슷하지 않나요? 소위 사랑 장이죠. 그리고 사랑은 활동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그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활동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커뮤니티는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운영됩니다.

사랑은 공동체의 수호자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관리자이며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입니다-15절.

여러분은 스테파나의 집안이 아카이아에서 처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었고,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데 헌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 일에 동참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스테파나, 포르투나투스, 아카이아가 왔을 때 저는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콜로새서의 에바프로디도와 같은 많은 마무리에서 바울은 콜로새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에바프로디도는

교회를 세운 에바프로디 도였고 , 바울의 측근 중 한 명이었으며 , 교회를 세운 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 대해 답장을 쓰고 그를 그 회중으로 홍보합니다.

그래서 회중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서 , 그것은 일종의 가택연금이었지만, 시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 돌보아야 했습니다.

당신은 음식 등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로마는 당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들어와서 무언가를 가져다주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여러 차례 바울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로마와 관련하여 그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영을 상쾌하게 했고, 여러분의 영도 상쾌하게 했습니다.

그런 남자들은 인정받을 만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한 일은 당신을 위해 한 일입니다. 좋아요.

흥미롭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지켜보고, 굳게 서라는 일반적인 권고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기리는 칭찬입니다. 바울은 사역에 귀중한 일꾼들을 여러 명 시작했습니다.

스테파누스의 집안은 아마도 교회에 후원을 하는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서신의 시작 부분과 여기에서 언급됩니다. 그리고 윈터는 후원자들이 보통 선행을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명예를 쌓도록 동기를 부여받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보답을 받기 위해 좋은 일을 합니다. 바울의 진술에서 스테파누스는 그 반대로 했습니다. 그는 공동체에 영예를 주고 자신의 지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지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찾고 있던 전환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은 그것을 가졌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됩니다.

기존 교회 네트워크가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시아 지방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중해가 보이고,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가 보이고, 물이 있고, 에베소 본토가 해안으로 내려옵니다.

진흙으로 채워진 강이 있었고, 강을 채우고 에베소를 약간 뒤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무역항으로서 물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그것을 보고 있다면, 바울에서 발견되는 일곱 교회의 원이 있지만, 1세기 말에 바울이 죽은 후 그 교회들을 관리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기억하시죠? 에베소는 요한이 활동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바울이 거기에 있을 때 거기에 있었는지, 아니면 요한이 나중에 왔는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요한이 예루살렘에 더 오래 머물렀다가 에베소로 왔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디모데도 에베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후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었고 요한이 왔을 때 다시 그 팀, 사도와 디모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의 아시아 속주의 수도였습니다. 16:19에 나오는 아시아 교회들은 꽤 넓은 범위를 포괄합니다. 에베소, 콜로새, 헤로폴리스, 거기에는 오타가 있는데, Q가 0여야 합니다. 헤로폴리스, 라오디게아, 그리고 아마도 요한 계시록 1:11에 언급된 다른 교회들. 라오디게아는 그 그룹의 일부였지만 요한이 관리한 것은 일곱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게 흥미로운 점은, 요한이 계시록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을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이 초기 진술들 중 일부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파트모스 섬에 있는 동안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존은 그 교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그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 다. 그런 다음, 그는 각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받습니 다.

당신이 관리해 온 것에 대한 신의 분석을 듣는 것은 흥미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교회였던 에베소는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이전의 모습과 헌신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 참조에 관해 생각할 만한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1세기 후반에 사도 요한이 아시아 교회의 감독자였다는 점도 흥미롭습니 다.

특히 요한 3서를 읽어서 그의 측근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하지만 요한 2서를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교회의 후원자가 언급되어 있고, 사실 한 여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단어를 듣는 데 익숙합니 다 . 하지만 브리스카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저명한 개종자였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알려졌습니 다.

그리고 로마의 고린도는 그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그들은 한때 고린도 교회의 후원자였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그들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따르면 바울의 사역 수행단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두 명의 저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굴라가 먼저 언급됩니다.

그들은 기독교 교회의 성장을 위한 교사이자 촉진자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상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꽤 많이 여행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유동적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이자 상인이었던 사람들은 여행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신성한 입맞춤으로 인사합니다. 글썄요, 그들의 문화권에서는 서로에게 입맞춤으로 인사했습니다. 유럽에서와 비슷하게, 여러분이 여러 번 보거나 연습했을 겁니다.

인사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악수가 일반적인 관습인 것처럼요. 악수는 예의 바르거나 따듯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차이를 만듭니다. 악수와 포옹조차도요. 미국 문화에서는 키스가 별로 유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맞이합니다. 좋은 악수는 그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묘사적이고 규범적이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증 서명. 이것은 흥미로운 서신으로, 16장 21절에 있습니다.

나, 폴은 이 인사를 내 손으로 씁니다. 마무리, 혹은 실례합니다, 이 마무리는 아마누엔시스의 사용을 보여줍니다. 아마누엔시스는 전문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세기에 문서를 만드는 데 꽤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마누엔시스를 사용했다는 것은 여러 곳에서 꽤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은 그의 측근이었을 수도 있고 지역 전문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일반적인 관행의 결과로, 바울은 편지의 끝에 무언가를 쓰거나 적어도 서명을 함으로써 그 편지를 인증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 모든 것을 직접 쓰지 않았는지에 대한 많은 제안이 있습니다.

그는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 중 하나는 바울이 리스트라로 가는 길에서 돌에 맞았을 때 그의 눈이 손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보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몇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것은 그의 글쓰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바울의 육체에 박힌 가시에 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에게 일어난 일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돌로 치더라도, 그들은 당신의 발에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머리에 던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은 리스트라로 가는 길에서 돌에 맞아 끔찍한 상처를 입었고 시력도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것의 재구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아마누엔시스를 사용한 다음 그의 서명이나 어떤 마지막 진술로 편지를 인증하는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내가 어떤 큰 글자로 쓰는지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그의 시력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심각한 저주와 1622년의 마라나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와, 그건 마치 얼굴에 차가운 물 한 잔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꽤 가혹해 보이지 않나요? 사실 저주예요. 구약성경에는 저자가 다른 나라, 사람 또는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는 저주 시편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건 그 근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저주하는 유형의 진술이라는 것은 충분히 분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저주를 받습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저주받은 자가 언급된 12장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 연관성을 완전히 명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용어입니다.

오세요 주님, 그게 마라나타라는 단어입니다. 아람어로 주님께 오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마라나타라는 단어로 음역하지 않고 번역했습니다. 마지막 저주인 마라나타는 고린도전서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내용을 찾을 수 없지만,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저주가 언급되어 있는 것과 서두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이여, 누가 너희를 홀렸느냐? 그 편지에는 서두가 없습니다. 프로토콜이 깨졌는데, 갈라디아서의 서두에 대한 큰, 큰 진술입니다.

아나테마는 신약성서의 저주를 구성합니다. 마라나타는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쓰이던 아람어입니다. 피츠마이어는 바울이 아람어로 기도했다고 주장하는데, 아마도 예수가 지상에서 아람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글쎄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꽤 얇은 글이에요. 코드워드가 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사도들은 아람어, 그리스어, 그리고 아마도 히브리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은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도 알았을 것입니다. 역사적 문서에는 로마 팔레스타인에서 이 언어들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며, 공식적인 로마 업무에 라틴어를 사용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는 혼란이 없도록 아람어, 그리스어, 라틴어로 명령을 내린 군사 서신이 있습니다.

수신자 집에는 그 언어 중 하나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풀은 매우 진지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아니고, 그는 여기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오세요, 주님. 주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아멘. 바울은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 속의 사랑은 공동체에서 지배적입니다. 언약적 충성심의 개념입니다. 성경 속의 사랑은 우리 문화권의 대부분에서처럼 감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헌신합니다. 변함없이, 사람들이 목사 사무실에 와서 이혼을 원할 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그들에게 사랑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사랑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랑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헌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논의할 것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논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랑은 감정적인 진술 이상입니다.

사랑해. 나는 네 최고의 존재를 마음에 두고 있어. 사랑은 선을 행하기로 하는 결정이고, 대상인 사랑에 대한 가능한 가장 큰 선이야.

우리는 13장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부정이 22절에서도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즉 주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께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산다면, 당신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당신은 갈 곳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전에 본 몇 가지 주제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수신자에 대한 사랑을 언급한 유일한 서신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다른 사람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그것을 사용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이 서신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그것은 초기 청중과 그들의 관계 모두에게 특히

격려적일 것입니다. 이제, 그가 사랑을 부정적으로나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고린도에 엘리트주의와 지위 때문에 주님께 언약의 충성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조건을 가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진지하고 진지한 수준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회에. 글썄요,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종합이에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확신을 얻고 당신의 사역을 위해 고린도전서에서 진지한 특정 견해를 이해하려면 스스로 조사해야 합니다.

당신이 내 말을 듣고 노트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의 독서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존재 전체에 스며드는 데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감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사역을 전진시킬 용기를 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며, 이 31개 강의를 함께 해주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노트가 여러분이 과정 때문에 길을 잃거나 지루해지지 않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연구를 하도록 자극했으면 합니다. 저와 동의하는 것이 이 과정의 목적이 아니라, 경전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시간과 메모가 많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주장하는 많은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아직 피상적인

부분만 끌어냈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말했지만, 이런 맥락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입증하지 못한 채로 많은 것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자료를 제공한 이유는 이것들이 제 뛰어난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대한 문헌에 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 시리즈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강의 시작 부분에 있는 노트에 제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한 것의 강점과 약점을 리뷰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고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다른 건 좀 해보고 싶어요. 신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한 시리즈를 하고 싶어요. 그에 대한 책을 썼고, 이런 형식으로 쓰고 싶어요.

저는 또한 영의 열매에 대한 진지한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10~15 시간 걸릴 겁니다. 이 형식으로 내놓기에는 짧은 시리즈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카메라와 소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피드백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는 없지만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주의를 끌기 위해 어느 정도 성공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신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리즈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각 기도의 시작 부분에서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도의 말씀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성부님,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과 등불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계몽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세상을 다루는 데 필요한 구성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생각하고 처리할 때, 우리는 그 노력의 결과로 당신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에 만족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 면에서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장과 이해가 우리가 이론 유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이 깊어지고 우리의 헌신이 더욱 확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서가 로마의 고린도에게 격려하듯이 우리가 굳건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념에 확고히 서고 굳건히 서 있어서 여러분을 위한 좋은 사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요즘 매우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으며, 우리 세상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이 있기를.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33강, 고린도전서 16장,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헌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 및 마무리 발언입니다.